

石谷 李圭峻의 扶陽理論에 관한 연구

황원덕*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Study on Suk Gock's Fortify Yang Theory

Won Duek Hwa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Biomedical Research Center of Oriental Medicine, Donggwi University

With regard to YinYang and Five Elements Theory, predominance of Yin or Yang is a key point to discuss Nourishin Ying or Reinforcing Yang. There are two major branches about studying predominance of Yin or Yang. Zhu Danxi advocated the theory that Yang was always in excess while Yin was often deficient, and thus belonged to the School for Nourishing the Yin. Zhang Jie-bin advocated that Yang is easily deficient while Yin is easily sufficient. It seems that they studied Wang Bing's 'Ministerial fire rule on all thing instead of Imperial Fire' and right Kidney Mingmen theory in Nan Jing, which are both related to the First Yang in the Book of Changes and say Mingmen fire is the host of the body. Zhu Danxi insisted that Mingmen fire was easily in excess and likely to become pathogenic fire while Water phase was easily in deficiency, so the doctors should nourish Yin and suppress Yang. Zhang Jie-bin said that Mingmen fire is vulnerable so the doctors should fortify yang and reinforce Mingmen fire. Suk Gock Master Lee thought that the Book of Changes and Nei Jing had a viewpoint of Fortify Yang as regards of some distinguished Physicians' articles about predominance of YinYang. The author's going to discribe Suk Gock's Fortify Yang Theory with viewpoints of Nei Jing and the Book of Changes.

Key words : Fortify Yang, Nourishing Yin, Imperial Fire, Ministerial fire, right Kidney Mingmen

서론

수천년의 醫學史에 있어서 우주의 원리를 인간의 생리 및 병리와 연관시켜 수많은 이론들이 나왔고, 이러한 이론들이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크나큰 영향을 끼쳐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때로는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루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이론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입상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한의학의 기본이론인 陰陽五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입상에 있어서 이른바 補陰 또는 補陽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陰陽偏勝에 관련된 醫論이다. 지금까지 諸家들이 주장한 陰陽偏勝에 관한 의론은 크게 두 가지 학설로 나누어지는데, 陰不足陽有餘를 주장한 대표적인 醫家로는 朱丹溪가 있고, 陽不足陰有餘를 주장한 대표적인 의

가로는 張景岳를 들 수 있다. 이들이 이런 학설을 주장한 근거는 『難經』의 右腎命門이 相火이며, 相火가 天命을 奉行하므로 命門相火가 人身의 主라고 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에 근거하여 朱丹溪는 相火는 有餘하여 망동하기 쉽고 水는 不足하기 쉬우므로 補陰抑陽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張景岳은 命門相火는 활동하면 虧損되기 쉬우므로 命門火를 補하는 扶陽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朝鮮末 石谷 李圭峻은 心君火가 人身의 主라고 하여 君火의 활동 측면에서 扶陽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¹⁾²⁾

이에 論者は 補陰抑陽과 扶陽抑陰의 근거가 되는 諸家の 君火相火理論과 命門學說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石谷의 扶陽理論을 살펴본 후, 諸家の 醫論과 石谷의 扶陽理論을 『內經』과 『周易』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 교신저자 : 황원덕, 부산시 진구 양정2동 산45-1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 E-mail : hwooso@hanafos.com, · Tel : 051-850-8625
· 접수 : 2004/04/04 · 수정 : 2004/05/03 · 채택 : 2004/06/01

1) 李圭峻, 素問大要(影印本),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07. "內經十八一言以要之, 曰陽密乃固. 豈獨軒岐之書爲然, 儀文之經, 亦以扶陽爲主."
2) 李圭峻, 素問大要, 서울, 대성출판사, 1999, p233-234. "心謂火之主, 故君火, 腎曰相火者, 非是別火, 此火之行乎水者也. 火之爲氣也, 能知覺運動呼吸笑語, 榮光皮膚, 衝掉風寒, 周流一身, 無所不在, 有是則生, 無是則死"

본 론

1. 諸家の 補陰抑陽·扶陽抑陰 理論

1) 諸家の 君火·相火에 관한 見解

君火와 相火의 효시는 『內經』의 運氣七篇(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至真要大論)이다. 그리고 이것이 醫論으로 제출되기 시작한 때는 唐 王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素問·天元紀大論』의 '君火以明, 相火以位'의 註에서 君火의 無用과 相火의 代行天命說³⁾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君火와 相火를 臟腑와 연관시켜 君火는 手少陰心, 相火를 手厥陰心胞라고 하였다. 그리고 金代 劉完素는 手厥陰心胞相火를 『難經』의 右腎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의 근거를 살펴보면, 『正理傷寒論』의 說⁴⁾인 君命을 행하는 相은 小心이고, 그 위치는 右腎에 居하며 手厥陰相火包絡之臟이라고⁵⁾ 한 것을 인용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朱丹溪는 相火論에서 "天非此火不能生物, 人非此火不能有生"이라고 하여 相火를 人신의 主火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明代 溫補學派에 이르면 『難經』의 命門에 대한 기능은 인정하였으나 위치에 대해서는 '內無臟腑, 外無經絡'이라 하여 腎間에 居한다⁶⁾⁷⁾⁸⁾고 하였다. 그리고 『周易』의 天一과 坎卦(☵)의 一陽(-)을 命門을 太極이라고⁹⁾¹⁰⁾¹¹⁾ 하여 命門相火를 人身의 眞君眞主라고¹²⁾ 하였다.

이상 諸家の 견해들을 총괄하면, 諸家들은 모두 相火가 居하는 곳을 독립된 藏으로 인식하였으며, 相의 개념은 王冰의 君火의 無用과 相火의 代行天命한다는 說에 영향을 받아 命門相火를

人身의 主로 삼았다.¹³⁾¹⁴⁾

2) 諸家の 腎有兩藏에 관한 見解

『難經』에서는 腎有兩藏을 左腎과 右命門으로 나누어 右腎命門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이 둘을 水火로 나누어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六朝時代의 『中藏經』이나 唐代의 『千金方』에서는 命門의 生理病理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고, 北宋의 『太平聖惠方』에서는 처음으로 『難經』의 右腎命門說을 언급하였으나, "夫腎藏者, 足少陰之經也, 左側爲腎, 右爲命門, 腎與命門者, 精神之所舍, 元氣之所繫也."라고¹⁵⁾ 하여 기능에 있어서는 腎과 命門을 동일시하였다. 北宋中期 이후 君火·相火와 命門이 연관되기 시작하면서부터 君火의 命을 행하는 相火를 心包라고 하고, 心包를 命門이라 한 것과 右腎을 命門이라고 한 『難經』의 개념이 혼용되었고,¹⁶⁾ 金·劉完素에 이르면 『難經』의 右腎命門에 대한 개념과 君火의 命을 행하는 相(手厥陰心包)의 개념 모두를 命門이라고 하여 左腎水와 右腎命門火를 구별하였다.¹⁷⁾ 이후 明代의 溫補學派들은 『難經』의 命門說 중 기능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右腎이 命門이라는 說을 비판하여 腎間動氣를 命門이라 하였으며,¹⁸⁾¹⁹⁾²⁰⁾²¹⁾ 『周易』의 坎卦중 一陽을 太極인 命門이라 하여 兩腎을 水, 腎間動氣를 火로 나누었다. 특히 明代 滑壽는, 『難經』에서 腎을 둘로 나눈 것은 北方을 『周易』에는 坎加習,

3) 王冰, 補注黃帝內經素問,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2, p. 174. "君火相火之右, 但立名于君位, 不立歲氣, 故天之以氣不偶, 其氣以行君火之政守位而奉天之命, 以宣行火令爾. 以名奉天, 故曰君火以名, 守位奉命, 故曰相火以位."
 4) 王冰, 補注黃帝內經素問,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p. 17. "素問·金匱真言論: 之 '脾胃大腸小腸膀胱三焦, 六腑皆爲陽.' 的王冰註에 "'正理論: 曰, 三焦者, 有名無形, 上合手心主, 下合右腎主, 調道諸氣, 名爲使者.'"라 하였다. 그런데 '正理論: 是 丹波元胤의 '中醫醫籍考: 到 "'正理傷寒論: 伏: 按是書諸家簿錄失載, 唯王冰素問次注, 成無己'傷寒論註解'引之.'"라 하여 著者 및 成年에 대한 언급은 없다.
 5) 劉完素, 劉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 278. "右腎命門爲小心, 手厥陰包絡之藏也. ...相行君命, 故曰命門爾."
 6)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1184. "予曰, 右屬水也, 命門乃兩腎中間之動氣, ...若爲屬水屬火屬臟屬腑, 乃是有形質之物, 則外當有經絡動脈, 而行於診, '鑿', '素'亦必著之於經也. ...顯'鑿', '素: 三陰三陽手足十二經, 配合皆有定例, 以象十二時, 十二月, 十二律之意. 今又以命門爲屬火, 則當統之於何經? 十二經既無所統, 則兩腎皆屬少陰水可知."
 7) 趙獻可, 醫貫, 香港, 人民衛生出版社, 1956, p. 4. "命門即在兩腎一寸五分間, 當一身之中, '易: 所謂一陽陷于二陰之中'. '內經: 曰, '七節之傍, 中有小心'是也, 名曰命門, 是爲眞君眞主, 乃一身之太極, 無形可見, 是其安宅也."
 8) 李中梓,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45. "詳考'內經: 無命門之經絡也, 既無經絡, 何以應診而可列之右尺乎? 但當以左腎爲水, 右腎爲火, 不可以左爲腎右爲命門也."
 9)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上海, 上海, 1985, p. 1185. "夫物物具五行, 五行一陰陽, 陰一太極, 五臟均有此金木水火土, 何乃指坎中之陽爲火, 指右腎爲少火也. 坎中之陽, 即兩腎中間動氣, 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10) 趙獻可, 醫貫, 前揭書, p. 4. "名曰命門, 是爲眞君眞主, 乃一身之太極, 形可見, 兩腎之中, 是其安宅也."
 11) 張介賓, 類經附翼, 서울, 大星出版社, 1982, p. 271, p. 276. "水象, 外暗而明, 坎卦, 內奇而外偶, 腎兩者, 坎外之偶也, 命門一者, 坎中之奇也, 一統兩, 兩以包一, 是命門總主乎兩腎, 而兩腎皆屬於命門." "命門居兩腎之中, 即人身之太極."
 12) 趙獻可, 醫貫, 前揭書, p. 4. "命門無形之火, 在兩腎有形之中, 爲黃庭, 曰, 五臟之眞, 惟腎爲根."

13) 李杲 外五人,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出版社, 1983, p. 86. "心火者, 陰也, 起於下焦, 其絲繫於心, 心不主令, 相火代之, 相火下焦包絡之火."
 14) 李杲 外五人,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出版社, 1983, p. 502. "曰君火火, 曰相火火. ...以名而言, 形氣相生, 配於五行, 故謂之君. 以位而言生於虛無, 守位奉命, 因其動而可見, 故謂之相火."
 15)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臺北, 僑昇出版社, 173.
 16) 北宋·德用, 南宋·催嘉彥과 南宋末·楊士瀛 등은 君命을 행하는 相인 心包命門과 精氣神이 머무르는 右腎命門을 구별하였다. 그리고 南宋·李嗣과 南宋·陳言은 心包命門과 右腎命門을 동일시 하였다.
 (1) 王九思 等集注, 難經集注, 臺北, 中華書局, p. 190. "其言命門者, 非尺也, 爲人之主命之門也, 是知腎有一也. 腎屬水, 故知以其右尺爲相火行君火之命令, 亦名命門即非腎之命門也, 蓋同名而異義也."
 (2) 李時珍, 本草綱目, 瀋湖脈學, 香港, 商務印書館, 1930, p. 17 "心肝左, 肺脾右, 腎與命門, 居兩尺部, ...浮爲心肺, 沈爲肝腎, 脾胃中州, ...命爲相火, 右寸間斷."
 (3) 楊士瀛撰 朱崇正附遺, 仁齋直指附遺方論,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30, pp. 1614~1615. "右尺之命脈與右腎之命門, 又者同而實異耳. 右尺之命脈即心主包絡者是, 三焦爲府, 取象於相火, 相行真心君火之命, 宣流氣血, 一名腑中, 上朝腦戶, 下接元陽, 精氣與子午相爲流通, 蓋得陰中養性之候. ...右夫右腎之命門, 謂腎有兩物者是, 左爲腎以藏志, 右爲命門以藏精, 腎主納氣收血化精, 而運入命門, 長養骨髓, 故男則化以爲精, 女則盈而月事, 兩者俱屬水, 而氣貫相通. '難經: 有曰, 命門者, 精神之所舍元氣之所繫,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者, 此之謂也. ...腎合膀胱, 左尺之脈純乎水, 命合三焦. 右尺之脈純乎火, 水火之義不待辯而自明矣. 然則右手尺部, 其經手厥陰, 其臟心包絡, 其腑三焦, 其名命脈, 決非命門."
 (4) 李嗣,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難經古注集成, 大阪, 東洋醫學研究會, 1982, p. 657. '命門者, 爲人生命之門, 又右尺爲相火行君火之命令.'
 (5) 陳言, 三因極一病証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p. 3. '右腎右手尺中, 屬手厥陰(心包)經, 與三焦手少陽經合.'
 17) 劉完素, 河間三六書, 前揭書, p. 278. "右腎命門小心爲手厥陰包絡之藏, 故與手少陽三焦合爲表裏, 神脈同出, 見手右尺也, 二經俱是相火, 相行君命故曰命門爾. 故仙經曰, '心爲君火, 腎爲相火.' 是言右腎屬火不屬水也."
 18) 孫一奎, 醫旨緒餘, 赤水玄珠全集, 前揭書, p. 1184. "此原氣者, 即太極之體, 名動氣者, 蓋動則生, 亦陽之動也, 此太極之用所以行也. 兩腎, 靜物也靜則化, 亦陰之靜也, 此太極之體所以立也. 動靜無間, 陽變陰合, 以生水火木金土也. 其斯命門之謂歟!"
 19) 趙獻可, 醫貫, 前揭書, p. 4. "名曰命門, 是爲眞君眞主, 乃一身之太極, 形可見, 兩腎之中, 是其安宅也."
 20) 張介賓, 類經附翼, 前揭書, p. 270. "夫右腎既藏男子之精, 則左腎將藏何物? 女子之胞何獨系于右? 此其說之不能無疑也."
 21) 上揭書, p. 276. "類經附翼·真陰論. 到 "命門居兩腎之中, 即人身之太極."

物에는 龜蛇, 방위에는 朔北, 『太玄經』에는 冥罔이라고 한 것과 통한다고 하였고²²⁾, 張介賓은 『類經附翼·求正錄』에서 腎이 兩藏인 이유를 北方의 神인 蛇武를 陰陽과 水火로 分하여 左는 陰과 水, 右는 陽과 火로 설명하였으며, 坎卦의 性情인 內明外暗을 分하여 內明은 火이고 外暗을 水라고 하였다.²³⁾

이상에서 대부분의 醫家들은 『周易』의 坎加習과 坎卦(☵)의 一陽, 二陰을 인용하여 『難經』의 左腎右命門說의 正統성을 확립시켰으며, 腎有兩藏을 腎水 命門火나 腎陰 腎陽으로 파악하였다.

3) 諸家の 命門에 관한 見解

『難經』에서는 腎을 둘로 나누고 左腎은 腎, 右腎을 命門이라 하였으며, 命門의 기능을 “命門者, 諸精神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故知腎有一也.”라 하였다. 『難經』의 文句에 대한 註釋家들의 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宋代 李嗣은 三十六難의 命門을 설명한 註에 “原氣起於子, 子者坎之方位, 坎者, 即父母之元氣, 乾爲天爲父, 坤爲地爲母. 今坎之初六六三, 乃坤之初六六三也, 坎之九二乃乾之九二也. 謂乾坤交於六三九二乃乾之九二而成坎卦, 所以原氣寄繫於腎.”²⁴⁾이라 하여 命門의 의미를 坎卦와 十二支중의 ‘子’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徐大椿의 『難經經釋·三十六難』의 命門에 대한 註에 “舍, 藏也. 言一身之精皆藏於此也. 原氣即元氣, 言根柢乎此也.”²⁵⁾라 하였듯이, 이 註釋家들의 공통점은 命門火의 기능을 精氣神이 納藏하는 의미로 인식하였다.

한편 日本 廣岡蘇仙은 『難經鐵鑑』에서 “蓋腎者, 生命之所繫也, 故名命門, 左右者皆水藏, 惟稱腎則命門在其中矣. 友人玄迪子曰, 腎固無左右之別, 依人道尚右僻左之義, 以置左右字耳. 其實與說其一, 一者爲腎, 一者爲命門者無異也.”²⁶⁾라 하여, 兩腎이 다 水라 하였으며 『難經』에서 腎을 左右로 나눈 이유는 人道에 있어서 右를 숭상하고 左를 천시한 思想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4) 諸家の 火의 病理

李冕은 『脾胃論』에서 “相火는 下焦包絡의 火인데 元氣의 賊이므로 火와 元氣는 양립할 수 없어서 한 쪽이 이기면 한 쪽은 지게 된다.”라 하였다.²⁷⁾ 李冕의 이 說을 朱震亨은 “相火가 다르게(병리적으로) 奮起하면 五性 厥陽의 火가 서로 扇動하기 때문에 妄動하고 火가 妄動하여 일어나면 變化를 예측할 수 없으며 眞陰을 煎熬하는데, 陰虛하면 病이 되고 陰絶하면 死하게 된다. 君火의 氣는 暘과 濕이고, 相火의 氣는 火인데 매우 사납고 격렬

한 것은 君火보다 甚하다. 그러므로 相火를 元氣의 賊이라 하였다. 五火의 動이 다 질차에 마땅하면 相火는 오직 도와서 모자람을 채우고 조화하여 生生不息의 運이 되는 것이니 어찌 賊이 있을 수 있는가.”²⁸⁾라 하여 相火가 비정상일 경우를 賊이라 하였다. 그리고 또 朱震亨은 “무릇 氣가 有餘한 것은 곧 火이다. 實火는 가히 瀉해야 하니 黃連解毒湯의 類이며, 사람이 壯盛하고 氣가 實한데 火가 盛하여 癡狂이 있는 경우는 가히 正治法을 사용하거나 혹 硝黃 氷水의 類를 복용케 한다.”²⁹⁾고 하였다.

孫一奎는 『赤水玄珠·內外君相篇』에서, “諸書에 소위 ‘實火는 可히 瀉하고, 虛火는 可히 補한다.’를 말한 것이다. 대저 實은 正氣의 有餘이고 虛는 正氣의 不足이다. 氣가 有餘한 것이 곧 實火이며 氣의 不足이 곧 虛火이다 그러므로 內에서 생긴 (병리적) 君火는 實火이며 人火이니 가히 水로 滅하고 正治를 해야하므로 黃連의 苦味로 瀉해야 한다.”³⁰⁾고 하였다.

張介賓은, “人의 情欲이 많아 妄動하면 다 능히 火가 일어나는데 火가 盛하면 元氣를 傷한 즉 元氣의 賊이라 한다……대저 情欲의 動은 邪念이고 邪念의 火는 邪氣이고, 君相의 火는 正氣이다……火인 賊이 사람을 傷한다는 것은 君相인 眞火가 아니라 內外에 있는 邪火라는 데는 의심할 바가 없다. 邪火는 가이 賊이라 할 수 있으나 相火를 가이 賊이라 할 수 없다.”³¹⁾라 하였다. 그리고 『景岳全書·新方八陣(熱略)』에서는, “丹溪는 ‘氣有餘便是火’라 하였으나 나는 읽기를 ‘氣不足便是寒.’이라 하겠다. 지금 사람들 중에 氣가 有餘한 자가 열 명 가운데 몇이나 되겠는가. 타고 났거나 喪敗하여 陽氣가 不足한 자가 많다. 寒이 中을 좇아 생겨서 陽衰의 病이 되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나, 단지 그 中에 좇아온 것이 적으면 形에 나타나는 것도 微微하여 당연히 그것(寒)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寒)이 이미 甚하면 비로소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³²⁾ 하여 朱震亨이 언급한 ‘氣有餘便是火’의 氣有餘를 張介賓은 陽氣가 有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清代 章楠은 “東垣이 말한 ‘相火, 元氣之賊也, 火與元氣不兩立’은 人身의 火를 말한 것이고, 張景岳은 이 說이 그러다하여 ‘相火는 元氣의 근본인데 어찌 賊이라 하겠는가.’라 하였다. 이 兩說이 각각 다 이치가 있으니, 한 쪽만을 치우쳐 버려서도 안된다. 君火가 妄動함으로 인하여 相火가 熾然함은 곧 忿怒과 같은 火인데, 欲이 動하여 火가 炎하면 元氣가 耗傷되므로 이를 敵이라

22) 滑壽, 難經本義, 前掲書, P. 42. “三十九難亦言, 左爲腎, 右爲命門. 而又其氣與腎通, 是腎之兩者, 其實則一爾. 故項氏家說, 引沙隨程可久曰, 北方常配二物. 故惟坎加習, 於物爲龜爲蛇, 於方爲朔爲北, 於太玄: 爲罔爲冥, 『難經』曰, 藏有一, 而腎獨兩, 此之謂也.”
 23) 張介賓, 類經附翼, 前掲書, p. 271. “唯是五藏各一, 獨腎有二, 既有其二象無不殊, 腎以耳目一也而左明於右, 手足一也而右強於左, 故北方之神有蛇武, 蛇主陽而武主陰. 兩尺之脈分左右, 左主水而右主火, 夫左陽右陰理之常也. …左主升而右主降…水象外暗內明, 坎卦內奇外偶, 腎兩者坎外之偶, 命門一者, 坎中之奇也.”
 24) 李嗣, 黃帝八十一難經竅圖句解, 前掲書, p. 658.
 25) 徐大椿, 難經經釋, 徐大椿醫書全集, 前掲書, p. 38.
 26) 廣岡蘇仙, 難經鐵鑑, 難經古注集成, 大阪, 東洋醫學研究會, 1982. 5: p. 에서 재인용.
 27) 李冕 外五人, 東垣十種醫書, 前掲書, p. 86. “相火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 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負.”

28) 上掲書, pp. 502~503. “相火二氣, 五性厥陽之火相扇則妄動矣. 火起於妄變化莫測, 無時不有, 煎熬眞陰, 陰虛則病, 陰絕則死. 君火之氣, 經以暑與熱言之, 相火之氣, 經以火言之, 蓋表其暴悍酷烈, 有甚於君火者也. 故曰相火元氣之賊……彼五火之動皆中節, 相火惟有裨補造化, 以爲生生不息之運用耳, 何賊之有?”
 29) 朱震亨, 丹溪心法, 北京, 中國書店, 1986, p. 43. “實火可瀉, 黃連解毒類, …凡氣有餘便是火. ……人壯氣實成癡狂者, 可用正治, 或硝黃氷水之類.
 30)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前掲書, p. 62. “如諸書所謂實火可瀉, 虛火可補之類. 夫實者, 正氣之有餘也, 虛者, 正氣之不足也. …氣之有餘則實火, 氣之不足則虛火. 故曰君火者猶人火也, 可以水滅, 可以正治, 惟黃連之苦瀉之.
 31) 張介賓, 景岳全書, 臺北, 臺灣國風出版社, 1980, p. 42. “人之情欲, 多有動, 動則俱能起火, 火盛致傷元氣, 即謂元氣之賊. …情欲之動, 邪念也. 邪念之火爲邪氣, 君相之氣正氣也. ……凡火之賊傷人者, 非君相之眞火, 無論在內在外皆邪火耳. 邪火可言賊, 相火不可言賊也.”
 32) 上掲書, p. 977. “丹溪曰, ‘氣有餘便是火.’ 余讀之曰, ‘氣不足便是寒.’ 夫今人之氣有餘者, 能十中之幾? 其有或因喪受, 或因喪敗, 以致陽氣不足者多見, 寒從中生而陽衰之病, 無所不致, 第其由來者漸, 形見者微, 當其未覺也, 孰爲之意? 及其既甚也, 始知治難也.”

한 것이니, 『內經』에 ‘항성된 병리적인 火는 元氣를 손상한다(壯火食氣).’고 한 것이 이것이다. 만약 心君이 安泰하면 相火가 奉命하여 북북히 火氣를 도와 陰陽이 화평해지면 元氣가 이로서 성장하므로 元氣의 근본이 된다. 『內經』에 ‘화평한 생리적인 火는 元氣를 생한다(少火生氣).’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東垣은 그 變을 논했고, 景岳은 그 常을 말했다를 따름이다.”³³⁾라 하였다.

清代 唐大烈은 『吳醫彙講』에서 “‘氣가 有餘하면 곧 火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病氣로만論을 세운 것이다……만약 六淫의 氣가 밖에서 榮衛 經府를 침입하여 精氣의 流行을 막으면, 마침내 腠理가 閉塞하게 되어 胸腹痞滿 二便不通 등 種種 病氣가 有餘한 象이 나타나게 되면 元氣는 이미 체내에서 굶주리는 기틀이 되므로, 醫師는 단지 그 원인되는 바를 살펴서 風이면 和劑를 쓰고 寒이면 發汗劑를 사용하여 火로 化하지 않게 하면 元氣는 회복된다. 만약 옳게 치료하지 않아서 病氣가 留着하면 六氣는 모두 가히 火로 化하므로 熱病은 다 寒에 傷한 類이며, 病機十九條가 熱에 속하는 것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氣가 有餘한 것이 곧 火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七情의 病도 역시 그러하지 않음이 없어서 喜가 太過하면 喜氣가 有餘하여 心火가 熾하고, 怒가 太過하면 怒氣가 有餘하여 肝火가 炎하니, 이 때는 당연히 臟器의 陰陽虛實으로써 이를 調濟해야 하므로 이왕 破氣降火라 말하지 말고 清火瀉火라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少火는 氣를 생하므로 하나가 傷하면 모두 傷하고 하나가 敗하면 모두 敗하여 衛生의 道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³⁴⁾라 하였다.

5) 火의 治法

諸家들은 그리고 病의 主因은 命門相火의 妄動을 元氣之賊³⁵⁾이라고 하거나 “氣有餘便是火.”라고 하여 氣나 火에 대한 인식을 병리적인 火로 인식하였으며, 心火盛, 腎水衰와 命門相火의 妄動 및 虧損을 병리적인 火로 파악하여, 降心火, 益腎水와 補命門火의 治법을 위주로 하였다.

6) 諸家의 補陰抑陽과 扶陽抑陰

(1) 補陰抑陽

扶陰抑陽說은 劉完素의 “六氣皆從火化”와 “五志過極皆爲熱甚”의 說에 영향을 받은 朱丹溪의 『格致餘論·陽有餘陰不足論』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朱丹溪는 (1) 天爲陽 地爲陰 天大地小이므로 인체에 있어서도 陰不足陽有餘라 하였고, (2) 男女의 陰精이 難成함을 예로 들어 비유하였고, (3) 性기능의 쇠약을 陰의 易虧에 비유하였고, (4) 四時 五藏 五行生克의 說로써 禁慾의 필연성을 논하였고, (5) 年月日時의 氣像과 인체의 虛함을 열거하여 禁慾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따라서 治법에 있어서는 補陰抑陽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근 中國의 楊力은 『周易與中醫學』에서 “중국의학 이론은 『周易』의 ‘剛健한 것에서 떨어내어 柔順한 것에 더해준다.(損剛益柔)’는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陰陽의 平형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抑陽益陰을 중시하였다. 그 대표자인 朱丹溪는 陽常有餘 陰常不足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周易』의 損剛益柔 損乾益坤의 영향을 받아 ‘하늘의 陽氣는 氣에 속하고 땅의 陰氣는 血에 속한다. 그래서 氣는 항상 여유가 있고 血은 항상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內經』의 『陰陽應象大論』에서 제시된 七損八益의 양생원칙도 역시 그 원리가 陰이 陽의 기반이 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制陽益陰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인체의 陰氣와의 관계를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陰氣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문장으로 표현하였다.”³⁷⁾라 하였다.

그리고 “老莊은 『周易』의 坤, 坎卦인 陰水의 柔順을 중시하고 靜養生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淸淨無爲’, ‘至虛極 守靜焉’의 虛靜觀은 중국 의학의 靜的인 양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素問·上古天眞論』에 보면 ‘恬憺虛無’, ‘精神內守’라 하여 道家의 靜的인 양생을 실현시킨 것이 그 예이다.”³⁸⁾라 하였다.

(2) 扶陽抑陰

扶陽抑陰의 기원은, 朱熹의 坤卦 初六의 注에 “대저 陰陽은 造化의 本으로 능히 서로 없어서는 안되는데, 消滅과 生長에는 攄攄함이 있으니, 또한 사람이 능히 줄이고 더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陽은 生을 주하고 陰은 殺을 주하니, 그 類에는 淑慝(善과 惡)의 구분이 있다. 그러므로 聖인이 易을 지을 때 이것(陰陽)이 능히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이미 健(乾)順(坤)과 仁義의 配屬으로 이를 밝힌다면 한 쪽으로 치우쳐 主할 바가 없으나, 이것이 消長과 淑慝의 구분에 있어서는 抑陰扶陽의 뜻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³⁹⁾ 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張介賓은 『類經附翼·大寶論』에서 “水火는, 水는 陰이요 火는 陽이다. 造化의 權樞는 다 水火에 있고, 이 水火의 象은 넷이 있는데, 즉 日은 太陽이요, 火는 少陽이요, 水는 太陰이요, 月은 少陰이다……丹溪는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日月盈虧를 인용하여 陰陽虛實을 증명하였으니, 또한 어찌 水가 日보다 淸을 알겠는가! 어찌 陽이 부족하고 陰이 太過함을 염려하지 아니하는가!……伏羲가 易을 지을 때 맨 먼저 一爻(乾卦)를 制한 것은 元陽의 祖를 세운 것이고, 文王이 易을 衍할 때 무릇 六十四卦에서 모두 陽은 君子에 비유하고 陰은 小人에 비유하였으니,

33) 章楠, 醫門棒喝, 前掲書, pp. 34~35. “東垣曰, ‘相火元氣之賊也, 火與元不兩立.’ 此謂人身之火也. 張景岳非之, 云相火元氣之本也, 豈可謂之賊. 此兩論說皆各有理, 不可偏廢. 然君火妄動, 相火熾然, 即忿怒等火也. 欲動火炎, 元氣傷耗, 故謂之賊.” 『內經』云, “壯火食氣”是也. 若心君安泰, 相火奉命, 默贊化機, 陰陽和平, 元氣賴以生長, 故爲元氣之本. 『內經』云, “少火生氣.”是也. 東垣論其變, 景岳道其常耳.”

34) 唐大烈, 吳醫彙講, 李聰甫 劉炳凡編著,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서울, 成輔社, 1985, p. 229. 에서 재인용. “氣有餘便是火, 此當專以病氣立論何則? 氣化于精, 精生于水穀, 故人一日不再食則飢, 飢則氣怯而怠倦. 若飲食適宜, 飲食有節, 始得元氣充流, 故御氣如持至寶, 非以氣之易干不足乎? 若六淫之氣外侵榮衛經府, 阻塞氣流行, 遂至腠理閉塞, 胸腹痞滿, 二便不通, 種種顯病氣有餘之象, 而元氣已形內餒之機, 醫者但察其所因, 如風則用和, 寒則用汗之類, 卽不致化火而元氣復矣. 若治不中肯, 病氣留着, 六者皆可化火, 卽熱病皆傷寒之類, 而病機十九條屬熱者多是也, 故曰氣有餘便是火, 則七情之病亦莫不然, 如喜太過則喜氣有餘而心火熾, 怒太過則怒氣有餘而肝火炎, 此尤當以臟器之陰陽虛實而調濟之. 以旺不日破氣降火, 卽曰瀉火瀉火, 吾恐少火生氣, 一傷則俱傷, 一敗則俱敗, 而難復衛生之道, 豈古人立言之旨.”

35) 李杲 外五人, 東垣十種醫書, 前掲書, p. 86. “相火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 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負.”

36) 上掲書, pp. 502~503. “相火元氣之賊……彼五火之動皆中節, 相火惟有裨補造化, 以爲生生不息之運用耳, 何賊之有?”

37) 楊力 지음 金忠烈 洪元植 外畧김, 周易과 中國醫學, 서울, 法仁文化社, 1993, pp. 233~234.

38) 上掲書, p. 517.

39) 朱熹, 周易集註, 前掲書, p. 24. “夫陰陽者, 造化之本, 不能相无, 而消長常, 亦非人所能損益也. 然, 陽主生, 陰主殺, 則其類有淑慝之分焉. 故聖人作易, 於其不能相无者, 旣以健順仁義之屬明之, 而無所偏主, 至其消長之際, 淑慝之分, 則未嘗不致扶陽抑陰之意焉.”

이것은 陽氣의 德을 밝힌 것이다. 乾卦의 象에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通天’이라 말한 이것은 元이 四德(元亨利貞)을 貫하여 發育의 首가 됨을 말한 것이다. 坤卦의 初六에 ‘履霜堅冰至’라 한 이것은 陰이 점차 長成함을 우려하여 이것(陰)이 化育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大有卦의 象에 ‘大有元亨, 火在天上’이라 한 것은, 陽의 德인 亨이 照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말하였다. 繫辭에 ‘天地之大德曰生’이라 한 이것은 간절히 生生의 本을 귀중히 한 것이다. 『內經』에 ‘凡陰陽之要, 陽密乃固’라 한 이 말은 陰이 믿는 바는 오직 陽을 주로 함을 말한 것이다. 또 ‘陽氣者若天如日, 失其所則, 折壽而不彰, 故天運當以日光明’이라 한 이것은 天運과 人命의 근본이 다 돌이 없는 太陽에 있다……天의 大寶는 오직 이 一丸紅日이고 人의 大寶는 이 一息眞陽이다. 그리고 眞陽의 근본이 命門이다. 先天의 나를 생하게 하는 것은 이것에서 받게 되고 後天의 나를 생하게 하는 것은 이것에서 비롯하여 裁成된다. 사람의 盛衰安危가 다 여기에 달려 있으므로, 이것은 生氣의 源이 되니 氣가 強하면 強하고 氣가 衰하면 病이 된다. 이것이 비록 至陰의 자리에 있으나 실지 元陽의 집이다.”⁴⁰⁾라고 하였다.

清代 章楠은 “天地間에 있어서는 陰이 衰하고 陽이 旺하면 이미 亢害의 災가 있음이니, 만약 陰이 다하여 陽이 孤하게 되면 萬物이 생하지 못하고 天地가 否塞할 터인데 어떻게 世界가 있겠는가. 人身의 陰陽이 孤絶하면 死하니, 이로써 보건대 『大易』의 扶陽抑陰이란 말은 그것으로 治世를 論할 수 있어도 治病을 論함은 不可하다.”⁴¹⁾ 하였고, 『醫門棒喝·論景岳書』에 “消長, 淑慝 二句는 朱子가 坤卦의 爻辭를 해석한 것인데, 이는 治世의 術을 말한 것이지 陰陽의 理致를 말한 것은 아니다. 진실로 淑慝이 있으면 당연히 扶抑을 해야 한다.”⁴²⁾라고 하였다.

2. 石谷 李圭峻의 扶陽論

1) 李圭峻의 君火 相火에 관한 見解

『素問大要·扶陽論』에서 “『內經』에 이르기를 “水火者陰陽

之徵兆.”라 하였다. 사람도 역시 이에 應하여 心火는 上에 있고 腎水는 下에 居한다. 火가 水에 降下한 後에 水가 上에 升하니, 陽이 交하면 生하고 陽이 反하면 死하게 된다…심은 火의 主가 되므로 君火라고 하며, 腎을 相火라고 말한 것은 (腎에) 별도의 火가 있는 것이 아니고 心火가 水에 行할 때 나타나는 火를 말한 것이다. 火가 氣運으로 되는데, 이는 능히 止하고, 活動하고, 호흡하고, 웃고 말하고, 肌膚를 潤澤하게 하고, 風寒을 막아서 一身에 流周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陽氣가 있으면 살고 陽氣가 없으면 죽게 된다.”⁴³⁾ 하여 心君火의 作用에 의해 相火가 나타나므로 生命활동의 主體는 君火라고 하였다. 따라서 石谷의 相火에 대한 견해는 『周易』의 坎離既濟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李圭峻의 腎有兩藏에 관한 見解

李圭峻은 『素問附說·腎有兩藏辨』에서 “天에 五行이 있어 각 其位가 하나이고, 人에 五藏이 있어 각 其氣가 하나인데, 『難經』에 이르기를 ‘腎有兩者非皆腎也. 左爲腎水, 右爲命門火’라고 하였다. 이 말은 그릇된 이치를 말한 것이니, 이것이 참으로 越人의 말이겠는가? 무릇 腎은 北方水藏이다. 天에 北方火가 없거늘 어찌 人身 홀로 腎藏火가 있겠는가?…腎이 둘인 것은 어찌한 것인가? 가로되, 腎은 冬藏이니, 時로는 始와 終을 이루고, 志로는 是와 非가 되고, 藏으로서 右로 納하고 左로는 泄한다.”⁴⁴⁾ 하여 腎을 水火로 나눌 수 없으며, 右로 生氣를 納하고 左로는 生氣를 泄하는 北方寒水로 보았다.

3) 李圭峻의 命門에 관한 見解

“命門이란 心包絡이다. 그 위치는 膻中에 있고, 그 府는 三焦이며, 그 經은 手厥陰이고, 그 官職은 臣使이므로, 이것을 命하여 이르기를 相火라 한 것이다. 相火가 遊行할 때, 四肢와 人體의 모든 조직이 (君火의) 命을 받지 않는 곳이 없으니, 脾가 相火를 받기에 水穀을 化하고, 肺가 이를 받기에 衛氣를 宣布하며, 肝이 이를 받기에 筋을 滋養하며, 腎이 이를 받기에 精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⁴⁵⁾라고 하여 心인 君火의 命을 出納하는 心包絡이 命門이라 하였다.

4) 李圭峻의 火의 病理

上에 있는 君火가 下降하지 못하면 相火가 反升하게 되고, 相火가 反升하면 下部인 腎이 虛寒하여 精亡血枯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火離水則精亡血枯.

* 風寒客入, 寒客皮膚, 陽氣乃拒, 鬱而成熱, 留而不去, 經脈受寒, 經脈受寒則血凝滯, 血凝滯則脈絀急.

* 喜怒不節, 嗜慾無度則相火反升, 相火升則陰反下, 陰反下則風寒從, 風寒從則水飲畜, 水飲畜則火乃鬱結

心君火가 전신에 燭 차서 活動하면 전신의 조직은 이 火를 받아서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七情이나 외감에

40) 張介賓, 類經附錄, 前揭書, pp. 273~275. “水火者, 水爲陰, 陽爲火也. 化之槩, 全在水火. 而水火之象有四, 則日爲太陽, 火爲少陽, 水爲太陰, 月爲少陰, ……丹溪所未知, 故引日月盈虧, 以證陰陽虛實, 亦焉知水火於日獨不慮陽之不足陰之太過乎! ……伏羲作易, 首制一爻, 此立元陽之祖也. 文王衍易, 凡六十四卦, 皆以陽喻君子陰喻小人, 此明陽氣之德也. 乾之象曰,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此言元貫四德, 陽爲發育之首也. 坤之初六曰, ‘履霜堅冰至’, 此慮陰之漸長, 防其有妨化育也. 大有之象曰, ‘大有元亨, 火在天上’, 此言陽德之亨也, 無所不照也. 『繫辭』曰, ‘天地大德曰生’, 此切重生之本也. 『內經』曰,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此言陰之所恃者, 惟陽爲主也. 又曰, ‘陽氣者, 若天如日, 失其所則折壽而不彰, 故天運當以日光明’, 此言天之運, 人之命, 元元根本總在太陽無兩, ……天之大寶只此一丸紅日, 人之大寶, 只此一息眞陽, ……欲固此陽, 計從安出? 曰但知根本, 卽其要也. 曰何謂根本? 曰命門是也, ……所謂命門者, 先天之生我者由此而受, 後天之我生者有此而裁也. 夫生之門卽死之戶, 所以人之盛衰安危, 皆繫於此者, 以其爲生氣之源, 而其強則強, 其衰則病, 此雖至陰之處而實元陽之宅.”

41) 章楠, 醫門棒喝, 前揭書, p. 35. “蓋『易』論治世之道, 以陰陽喻君子小人, 必扶陽抑陰, 使君子道長, 小人道消, 則世道治矣. 然以陰陽喻君子小人則可, 以小人君子喻陰陽則不可. 何則? 治世者, 必盡陰小人之爲善, 若天地之間, 陰衰陽旺, 已有亢害之災, 如陰盡陽孤, 則萬物不生, 天地否塞, 何有世界乎? 人身陰陽, 卽天地陰陽, 一體無二, 故陰陽偏勝則病, 陰陽孤絕則死以是見『大易』扶陽抑陰之言, 可以論治世, 不可論治病也.”

42) 上揭書, p. 187. “消長淑慝三句, 朱子解坤卦爻辭, 爲治世之術而言, 非陰陽之理, 固有淑慝而當扶抑也.” 그런데 朱자는 “陽主生, 陰主殺, 則其類有淑慝之分…消長之際, 淑慝之分, 則未嘗不致其扶陽抑陰之意焉.”이라 하여 陰陽의 理致인 陽生陰殺인 의미로 抑陰扶陽을 말하였다.

43) 上揭書, p. 307. “水火者陰陽之徵兆. 人亦應之, 心火在上, 腎水居下, 火乎水, 而後水乃升焉. 故陽交則生, 陽反則死.”

44) 李圭峻, 素問大要(影印本), 前揭書, p. 314. “腎有兩者, 何也? 曰, 腎者藏也. 於時, 成始成終, 於志, 爲是爲非, 於藏, 右以納之, 左以泄之.”

45) 上揭書, pp. 313~314. “命門者心包絡也, 其位膻中, 其府三焦, 其經手厥陰, 其官臣使, 故命曰相火. 相火之行, 四肢百體, 莫不受命, 脾得之而化穀, 肺得之而宣衛, 肝得之而榮筋, 腎得之而生精.”

의해 心인 君火의 작용이 전신에 활동하지 못하면 막히게 되므로 鬱熱이 생기거나 相火가 下하지 못하고 도리어 升하게 된다. 陽氣의 활동 자체는 본래 鬱熱이나 相火上逆은 나타나지 않는다. 鬱熱이나 相火上逆은 邪氣가 원인이 되어 陽氣가 막혀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相火를 받지 못한 그 조직은 활동되지 못하므로, 그 조직이 함유하고 있는 水는 津液으로 化하지 못하고 水飲이 되어 이 조직은 寒하게 된다.

5) 李圭峻의 火의 治法

이상에서 石谷의 火의 治法은 陽氣가 人身에 恰 차서 막히는 곳이 없이 활동하여 邪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扶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邪氣에 의해 相火가 反升할 경우, 病이 微하면 火를 治하여 降火시키는 逆治를 하고, 病이 甚하면 邪를 治하는 從治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⁶⁾ 上에 있는 心火는 下降해야 下에 있는 腎水는 이 火를 받아 上升하므로, 언제나 上을 清하게 하고 中을 通하게 하며 下를 溫하게 하는 清上通中溫下가 治療의 大法이라고 하였다.

6) 李圭峻의 扶陽論

扶陽論의 효시는 『周易』 坤卦의 初六爻의 朱子註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李圭峻의 扶陽論을 朱子의 抑陰扶陽論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 天地交變, 萬物化生, 天地閉塞, 萬物死藏, 天地者萬物之父母.

* 天地交則雲行雨施, 萬物生榮. 天地不交則雨露不降, 草木枯死. 故心交腎則精生血榮, 火離水則精亡血枯. (朱子의 抑陰扶陽論: “夫陰陽者, 造化之本, 不能相无, 而消長有常, 而無所偏主.”)

위의 문장은 陰陽은 調和의 根本으로서 한 쪽을 치우쳐 主할 바가 없음을 설명한 문장이다.

* 陽伸則物生, 陽屈則物死

* 陽主生育, 爲春爲晝, 陰知肅殺, 爲秋爲夜.” (朱子의 抑陰扶陽論: “陽主生, 陰主殺, 則其類有淑慝之分焉. 至其消長之際, 則未嘗不致扶陽抑陰之意焉.”)

陽이 활동하면 만물이 生長하고 陽이 수렴하면 만물은 쇠퇴한다는 것은, 陽의 활동에 의해 만물의 성쇠가 좌우됨을 설명한 문장이고, 陽은 生育을 主하므로 春夏와 晝가 이에 해당되고, 陰은 肅殺을 主하므로 秋冬과 夜에 해당된다는 것은 ‘陽主生, 陰主死’하는 消長の 측면에서 抑陰扶陽을 설명한 문장이다.

* 陽勝則熱, 陰勝則寒, 陽之太過, 不能無病, 汗下卽已. 陰之太過, 病乃大作, 溫亦難愈. 故曰, ‘善治者治皮毛, 其次治筋脈, 其次治六府, 其次治五藏, 治五藏者半死半生也’

陽이 勝하면 熱하고 陰이 勝하면 寒하니, 陽이 太過하면 病이 없지는 않지만 汗下하면 치유되나, 陰이 太過하면 病이 이에 심하게 되어 따뜻하게 해도 낫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善治者, 治皮毛, 其次治肌膚, 其次治筋脈, 其次治六府, 其次治五藏. 治五藏者, 半死半生也.’라고 하였다.

陰陽이 太過하면 모두 병이므로 陽病인 경우는 扶陰抑陽을 해야 하고 陰病인 경우는 扶陽抑陰을 해야 하는데, 치료의 측면에서 보면 陽病은 치료하기 쉽고, 陰病은 치료하기 어려우므로, 陽主表, 陰主裡하는 관점에서 扶陽을 주장하였다.

* 夫軒岐神聖也, 論理天人, 必以扶陽爲主, 其論虛實曰,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 邪氣者風寒也, 精氣者陽氣也. 聖人扶抑之意, 於此可見矣. ……軒岐之書, 『內經』十八卷, 一言以要之, 曰, ‘陽密乃固’, 豈獨軒岐之書爲然? 義文之經亦以扶陽爲主. 聖賢千萬言, 無非遏惡揚善, 苟識其理, 奚獨衛生而已哉?⁴⁷⁾ (朱子의 抑陰扶陽論: “淑慝(善惡)之分, 則未嘗不致扶陽抑陰之意焉.”)

대저 黃帝, 岐伯은 神聖으로 天人의 이치를 논할 때 반드시 陽으로 主를 삼았으며, 虛實을 論함에 있어서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라고 하였다. 邪氣는 風寒이고 精氣는 陽氣이니, 聖人이 (陽을)도우고 (陰을)억누르는 뜻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內經十八卷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陽密乃固’이니, 어찌 軒岐의 書에 만 유독 그렇겠는가. 伏羲, 文王의 經(周易)도 역시 扶陽을 主로 삼았다. 聖賢의 모든 말씀이 惡을 막고 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님이 없으니, 진실로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 어찌 홀로 衛生에 만 해당하겠는가.” 善인 陽氣를 扶하고 惡인 邪氣를 억누르는 것이 周易과 素問의 思想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石谷의 扶陽論은, 陽氣의 활동만을 강조하여 精血의 不足을 소홀히 한다는 이론이 아니라, 陽은 陰을 바탕으로 하여 활동하고 陰은 陽을 받아야 生長하는데, 陽氣가 활동하여야 精血이 生成한다는 관점과, 陽은 表, 陰은 裡이므로 治病에 있어서 表보다는 裡의 病을 치료하기 어렵다는 관점과, 陰陽을 正邪의 側面에서 보면, 善인 正氣는 陽에 해당되고, 惡인 邪氣는 陰에 해당되는 관점에서 扶陽論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諸家		李圭峻
	朱丹溪	張景岳	
心曰君火	君火以名(至尊無爲)	君火以明	생명활동의 주체(心曰太極)
腎曰相火	생명활동의 주체(命門相火曰太極)		君火가 下行하여 腎水에 나타나는 火
腎有兩藏	左-腎水 右-命門相火	兩腎-水 腎間-命門相火	北方寒水
命門	右腎	腎間動氣	心包
坎(☵)	一陽-命門相火 二陰-腎水		腎-寒水(左以泄之, 右以納之)
火의 病理	相火妄動으로 眞陰煎熬	君火相火는 病理의 火가 아니며, 病理의 火는 邪火이다.	君火가 邪氣에 의해 下降하지 못하여 鬱熱이 생기거나 相火가 反升
火의 治法	補眞陰, 降命門相火	補命門相火	清上通中溫下
補陰抑陽 扶陽抑陰	陰不足으로 陽盛하기 쉬우므로 補陰抑陽을 주장	命門相火의 虧損·扶陽	一. 陽氣가 모든 조직에 행하여야 精血을 生하는데, 邪氣에 의해 陽氣는 막히는 것이 病이므로 陽氣를 소동시켜야 精血이 生長·扶陽 二. 善인 正氣는 활동시키고 惡인 邪氣를 억누르는 扶陽抑陰을 주장

46) 前掲書, P. 318. “相火所病, …治之奈何? 微則治火, 火降則泄自止, 甚則從治, 故曰微者逆之, 甚者從之.”

47) 上掲書, p. 308, p. 310.

3. 諸家와 李圭峻의 醫論에 관한 比較 考察

1) 君火와 相火에 관한 고찰

李圭峻과 諸家の 見解를 비교해 보면, 李圭峻은 君火의 활동을 생명력의 주체로 보았으나, 諸家들은 相火를 생명의 주체로 인식하였고, 李圭峻은 心인 君火가 腎水에 下降하여 나타나는 火를 相火라고 하였으나, 諸家들은 下部인 腎에 별도의 火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들의 見解를 素問과 周易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火는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南方生熱，熱生火”라⁴⁸⁾ 하였으며, 『素問·金匱真言論』에서는 “陽中之陽，心也”라고⁴⁹⁾ 하였으며, 『周易·說卦』에 “離也者，明也，萬物皆相見，南方之卦也。聖人南面而聽天下，嚮明而治，皆治諸此也…離爲火，爲日”⁵⁰⁾이라 하였다. 그리고 水는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北方生寒，寒生水”라고 하였으며, 『素問·金匱真言論』에서는 “陰中之陰，腎也”라고⁵¹⁾ 하였으며, 『周易·說卦』에 “坎者，水也，正北方之卦也，勞卦也，萬物之所歸也，故曰勞乎坎…坎爲水，爲月”이라고⁵²⁾ 하였다.

이상에서 『周易』과 『內經』은 南方을 火라 하고, 이를 君主와 聖人に 비유하여 생명활동의 주체로 설명하였으며, 北方을 水라 하고 火가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만일 諸家들의 견해처럼 坎(☵)중의 一陽을 命門相火, 二陰을 腎水라고 한다면, 離(☲)중의 一陰과 二陽도 두 개의 臟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離卦의 一陰과 二陽을 水臟과 火臟으로 나눌 수 없는 南方火인 것처럼, 坎卦(☵)의 一陽과 二陰도 腎水, 命門相火로 나눌 수 없는 北方寒水이다. 腎은 寒하므로 心火를 받아야 生하고 心은 熱하므로 腎水를 얻어야 生한다. 따라서 ‘腎日相火’란 腎에 火가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心火가 腎水에 행할 때 나타나는 火를 말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周易』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坎離가 相交하여 下部에 있는 坎이 위로 올라가고 上에 있는 離가 아래로 下降한 坎離既濟를 뜻하며, 이 때 離卦과 坎卦가 火가 下部에 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를 의학에서는 ‘腎日相火’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張介賓은 君火를 無形之名, 相火를 독립된 有形의 火로 인식하였으나, 『周易·說卦』에 “離也者，明也，萬物皆相見，南方之卦也。聖人南面而聽天下，嚮明而治，皆治諸此也…離爲火，爲日”라고 하여 離卦(☲)는 有形의 火와 無形의 明을 모두 포괄하는 南方火라고 하였으므로, 北方을 明과 火로 나누고 明을 君火, 火를 相火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君火의 활동을 생명력의 주체로 보고, 心君火가 腎水에 下降하여 나타나는 火를 相火라고 한 李圭峻의 견해가 『內經』 및 『周易』의 이론과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2) 腎有兩藏에 관한 考察

諸家들은 『難經』에서 兩腎을 左腎과 右命門으로 나눈 것은 北方을 『周易』에는 坎加習, 物에는 龜蛇, 방위에는 朔北, 『太玄經』에는 冥罔이라고 한 것과 통한다고 하여, 右腎, 腎間

動氣를 火藏이라고 하거나 左腎, 兩腎을 水藏이라고 한 반면에, 李圭峻은 北方寒水인 腎의 기능을 升과 降, 納과 泄, 終과 始라고 하여 두가지 性情을 지닌 一藏이라고 하였다.

『周易』의 “坎加習”은 坎의 중복을 말한 것으로, 龜蛇, 罔冥, 朔北등과 의미가 통한다.⁵³⁾ 이 가운데 우선 冥罔의 의미를 살펴 보면, 北宋代 蘇軾은 “五藏은 모두 다 하나인데 腎만 유독 둘인 것은, 무릇 만물이 시작하고 끝나는 곳으로, 生이 출하는 곳이고 死가入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太玄』의 罔直蒙會冥에서, 罔은 冬에 해당하고, 直은 春이 해당하고, 蒙은 夏에 해당하고, 會는 秋에 해당하고, 冥은 다시 冬에 해당하는 것이 이 이치이다. 人의 四肢九竅가 대개 둘인 것은 다 水에 속한다. 兩腎, 兩足, 兩外腎, 兩手, 兩目, 兩鼻 이 모두는 다 水가 升降出入을 한다.”⁵⁴⁾라 하여 腎은 명망은 終始, 死生, 升降과 出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朔北의 의미를 살펴보면, 『書傳·堯典』의 “申命和叔, 宅朔方, 日幽都”의 註에 “朔方은 北쪽의 荒涼한 땅이다. 朔이라 할 때, 朔은 蘇生을 말함이니, 萬物이 이곳에 이르러 死하여 다시 蘇生한다.”⁵⁵⁾라고 하여 北方을 生과 死의 두가지 性情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腎의 性情을 둘로 설명한 부분을 『內經』에서 인용하면, 『素問·上古天真論』의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故五藏盛, 乃能寫.”⁵⁶⁾와 『素問·水熱穴論』에 “帝曰, 諸水皆生於腎乎? 岐伯曰, 腎者牝藏也, 地氣上者屬腎而生水液也, 故曰至陰.”⁵⁷⁾이다. 『內經』의 이 두 문장은 腎을 藏과 寫, 升과 降하는 두가지 기능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坎(☵)의 一陽과 二陰을 腎과 命門으로 나는 제가의 견해를 『周易』의 관점에서 보면, 離(☲)의 二陽과 一陰을 兩藏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坎卦(☵)의 一陽과 二陰도 腎과 命門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十二支중의 ‘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루를 기준으로 낮에 陽으로 행한 氣가 足少陰間인 子時를 기준으로 하여 納과 동시에 出한다. 또 계절의 측면에서 冬을 기준으로 하여 左와 右를 나누어 본다면, 右에 屬하는 秋에서 精氣神을 받아 藏하고 이 藏한 精氣神을 子인 冬至를 頂點으로 하여 左에 屬하는 春으로 泄한다. 그러므로 秋生冬의 ‘冬’과 冬生春의 ‘冬’이 서로 다른 冬이 통해 있는 게 아니므로 腎의 기능은 精氣神의 藏과 寫를 다 포함하는 의미라고 생각된다.⁵⁸⁾

53) 備旨具解原本周易, 서울, 一中社, p. 518. “『傳』習坎…習重也, 如學習溫習, 皆重複之義也.”

54) 袁樹珊編著, 命譜, 洞德堂, 1948, 1: p. 81. “端居靜念, 思五藏皆止一, 而獨二, 蓋萬物之所終始, 生之所出, 死之所入故也. 太玄罔直蒙會冥, 罔爲冬, 直爲春, 蒙爲夏, 會爲秋, 冥復爲冬, 則此理也. 人之四肢九竅凡兩者皆水屬也, 兩腎, 兩足, 兩外腎, 兩手, 兩目, 兩鼻, 皆水之昇降出入也.”

55) 蔡沈, 書傳集註, 서울, 明文堂, 1987, p. 5. “朔方北荒之地, 謂之朔者, 朔爲言蘇也. 萬物至此, 死而復蘇, 猶月之晦而有朔也.”

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 11. 歷代 醫家들이 주장한 命門의 기능인 男子의 藏精과 女子의 月事 受胎와 胎兒의 生成을, 『素問·上古天真論』의 男子八數와 女子七數를 논한 부분에서는 腎의 기능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문구의 末尾에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故五藏成, 乃能瀉, 今五藏皆衰, 筋骨解墜, 天癸盡矣, 故髮鬢白, 身體重, 行步不正而無子耳.”라 하여, 腎의 기능인 男子의 藏精과 女子의 月事 受胎는 五藏의 盛衰에 좌우된다고 하여 腎을 牝藏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57) 上掲書, p. 213.

58) 冬초까지는 秋의 收한 것을 藏하고, 冬至이후부터 一陽이 生하는 것이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 24.

49) 上掲書, p. 20.

50) 朱熹, 周易集註, 서울, 明文堂, 1978, P. 422, P. 429.

51) 上掲書, p. 20.

52) 朱熹, 周易集註, 前掲書, p. 423.

이상을 종합하면, 『周易』의 坎加習과 坎(☵)의 一陽, 二陰에 근거하여 腎을 左腎과 右命門으로 나눌 수 없다. 그러므로 『難經』의 左腎右命門說은 『周易』 및 『內經』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腎을 右로는 納하고 左로는 泄하는 北方寒水라고 한 李圭峻의 견해가 『內經』 및 『周易』의 이론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3) 命門에 관한 고찰

『難經』의 右腎命門說에 영향을 받은 諸家들은 腎을 兩臟으로 나누고, 右腎 또는 腎動氣를 命門이라 하여 火로 인식하였으나, 李圭峻은 腎이 北方寒水로서 右納左泄하기 때문에 두 개의 臟으로 나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命門의 개념을 君命이 출납하는 門의 의미로 보아 “膻中者臣使之官, 喜樂出焉.”에 해당하는 心包를 命門이라고 하였다.

『內經』全篇에 人身의 下部에 命門相火가 있다는 설명은 없으며, 『素問·上古天真論』의 男女의 七損八益을 설명한 구절에서 『難經』의 右腎命門의 기능인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를 腎의 개념에 포함시켜 설명하였다. 앞의 「2」腎有兩臟에 관한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內經』에서는 腎을 命門相火와 腎水로 나눌 수 없는 北方寒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內經』의 관점에서 보면 右腎을 命門으로 볼 수 없으며, 命門이란 精氣神이 출입하는 문을 뜻하므로, 『內經』의 “膻中者臣使之官, 喜樂出焉.”이 이에 해당되는데, 膻中은 곧 心包이다.

그러므로 右腎命門과 별개의 火라고 인정한 相火를 연관시켜 右腎을 命門相火라 할 수 없으며, 君火의 命을 받아 行하는 手厥陰心包를 命門相火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4) 火의 病理에 관한 고찰

朱丹溪는 정상적인 相火는 인체 생명활동의 주체이지만 五志가 過하면 下部에 있는 相火가 망동하여 逆上하는데, 이 때의 相火는 元氣의 賊이라고 하였으며, 氣有餘한 것이 곧 火라고 하였다. 張景岳은 이를 비판하여 “情欲의 動은 邪念이고 邪念의 火는 邪氣이고, 君相의 火는 正氣이다…邪火는 賊이라 할 수 있으나 相火를 賊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은 ‘氣有餘便是火’라고 하여 氣를 병리적인 熱과 火쪽으로 치우쳐 인식하였다.⁵⁹⁾⁶⁰⁾⁶¹⁾ 李圭峻은 君相火에는 有餘, 不足이 없으며, 전신을 유행해야 할 陽氣(君火)가 喜怒不節, 寒暑過度 등인 邪氣에 의해 막히게 되면 鬱熱이 생기거나 下降해야 할 相火가 도리어 升한다고 하여, 陽氣가 有餘한 實火는 존재할 수 없으며, 熱이나 火가 생기는 것은 陽氣가 邪氣에 의해 유행할 조직이 막혀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 제가의 견해를 『內經』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腎有兩臟에 관한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內

經』의 관점에서 보면, 腎에는 火가 없으며, 단지 君火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서 相火가 反升하여 上熱이 나타나므로, 下部에 있는 相火가 妄動하여 上熱이 나타난다는 제가의 견해는 『內經』의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素問·生氣通天論』에 “蒼天之氣, 清淨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 雖有賊邪, 不能害也, …失之則內閉九竅, 外壅肌肉, 衛氣散解, 此謂自傷, 氣之削也.”⁶²⁾라고 하였으며, 『素問·生氣通天論』에 “主明則下安, 主不明則十二官危, 使道閉塞而不通.”⁶³⁾이라고 하였다. 心氣가 清淨하면 相火가 心命(光明과 熱)을 받아 전신을 遊行하면 人身에 陽氣가 恰 차서 外邪가 침입할 수도 없고 內邪가 생길 수도 없는데, 失之하면 邪氣에 의해 心이 清明하지 못하게 되고, 心이 清明하지 못하면 陽氣가 全身에 恰 차지 못하고, 生氣의 유통로인 조직은 막히게 된다고 하였다.(內閉九竅, 外壅肌肉, 使道閉塞). 이렇게 되면 막힌 그 조직은 陽氣가 그 곳을 遊行할 수 없기 때문에 陽氣는 鬱하게 되어 熱이나 火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素問·至真要大論』중 病機十九條의 火와 熱에 속하는 모든 症狀들은 邪氣(外感, 飲食傷, 七情傷)에 의해 陽氣가 鬱하여 熱이 나거나 下降해야 할 相火가 도리어 逆上하여 나타난 症狀이다. 그리고 『素問·通評虛實論』에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⁶⁴⁾라 하였으므로, 陽氣가 亢盛하여 鬱熱이나 相火上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邪氣에 의해 陽氣가 막혀서 鬱熱이나 火가 생긴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君火, 相火 및 陽氣자체는 妄動이나 亢盛이 있을 수 없으며, 七情의 무제절 또는 寒暑過度 등의 邪氣가 陽氣의 활동을 막으면 鬱熱이나 相火反升이 나타나는데, 이를 精氣가 有餘한 實火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諸家들의 ‘氣有餘便是火’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5) 火의 治法에 관한 고찰

朱丹溪는 下焦의 相火는 妄動하여 亢盛하기 쉽고, 眞陰은 煎熬하기 쉽다고 하여 滋陰降火를 火의 치법으로 제시하였으며, 張景岳은 命門의 火는 虧損하기 쉬워 腎陰을 溫化하기 어렵다고 하여 溫補命門相火를 火의 치법으로 제시하였으나, 李圭峻은 喜怒不節, 寒暑過度하면 心인 君火의 작용이 전신에 활동하지 못하고 막히게 되므로, 鬱熱이 생기거나 相火가 下하지 못하고 도리어 升하게 되므로, 陽氣가 人身에 恰 차서 막히는 곳이 없이 활동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上에 있는 心火가 下降해야 下에 있는 腎水는 이 火를 받아 上升하므로, 언제든지 上을 清하게 하고 中을 通하게 하며 下를 溫하게 하는 清上通中 溫下가 治療의 大法이라고 하였다.

이상 제가의 견해를 『內經』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內經』에서는 邪氣에 의해 心君火의 활동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陽氣가 막혀서 火鬱로 나타나는데, 이의 치법을 『素問·六元正氣大論』에 “鬱之甚者, 治之奈何? ……火鬱發之, ……然調氣, 過者折之以其長也, 所謂寫之.”⁶⁵⁾라하여 火鬱의 치법은 發

秋生冬, 冬生春의 의미이다.

59) 朱震亨, 丹溪心法, 前掲書, p. 43. “實火可瀉, 黃連解毒之類, …凡氣有餘是火. ……人壯氣實成頭狂者, 可用正治, 或硝黃冰水之類.”

60)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前掲書, p. 62. “如諸書所謂實火可瀉, 虛火可補之類, 夫實者, 正氣之有餘也, 虛者, 正氣之不足也. …氣之有餘則實火, 氣之不足則虛火. 故曰君火者猶人火也, 可以水滅, 可以正治, 惟黃連之苦瀉之.”

61) 張介賓, 景岳全書, 前掲書, p. 977. “丹溪曰, ‘氣有餘便是火.’ 余讀之曰, 不足便是寒. 夫今人之氣有餘者, 能十中之幾? 其有或因染受, 或因喪敗, 以致陽氣不足者多見, 寒從中生而陽衰之病, 無所不致, 第其由來者漸, 形見者微, 當其未覺也, 孰爲之意? 及其既甚也, 始知治難也.”

62) 上掲書, p. 16.

63) 上掲書, p. 34.

6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 107.

6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p. 277 ~ 278. 張介賓은 ‘景岳全書 升陽散火辨.’에서 “火病은 陰에서 發하는 경우와 陽에서 發하는 경우가

之 즉 疏通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火鬱이 陽에 있으면 辛涼으로 發散하고 陰에 있으면 邪氣가 陰에까지 침입하여 生氣는 상당히 위축되었으므로, 근본인 邪氣는 辛熱로써 發散함을 爲主로 하여 다스리고 나타나는 熱은 氣味가 陰인 酸苦를 佐使로 하여 涌泄케 해야 한다. 그리고 邪氣에 의해 막힌 조직에 火鬱이 甚하게 되면 相火가 遊行하지 못하고 오히려 升하게 되고, 相火가 反升하면 上은 實하게 되고 下는 虛하게 되어 저절로 寒하게 된다. 예를 들면 『素問·至眞要大論』의 病機條에 ‘諸逆衝上皆屬火’라 하였는데, 이것은 下降해야 할 火가 오히려 逆上하였으므로 자연히 下는 寒하게 된다. 이의 처방을 “有者求之, 無者求之,⁶⁶⁾ 盛者責之, 虛者責之, 必先五勝, 疏其血氣, 令其調達, 而致和平, 此之謂也.”⁶⁷⁾ 라 하여, 드러나는 熱도 살피고 나타나지 않는 寒도 살피서 邪氣가 盛하면 瀉하고 精氣가 虛하면 補하는데 반드시 五勝(五行更勝)을 먼저 하여 氣血을 疏通시켜 막힌 조직까지 도달하도록 하여 陰陽을 和平케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邪氣에 의해 相火가 反升할 경우, 『素問·至眞要大論』에서 病이 微하면 苦寒之劑로 火를 治하여 降火시키는 逆治를 하고, 病이 甚하면 下寒이 심하여 相火가 反升한 경우이므로, 辛溫之劑로 邪를 治하는 從治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⁶⁸⁾ 즉 上에 있는 心火를 下降시키고 下에 있는 腎水는 이 火를 받아 上升하게 해야 하므로, 언제든지 上을 清하게 하고 中을 通하게 하며 下를 溫하게 하는 清上通中溫下가 治療의 大法이라고 하겠다.

있다. 陰에서 發하는 경우는 火가 內에서 생기는 경우이고 陽에서 發하는 경우는 火가 外에서 이루는 경우이다. 內에서 생기는 것은 五內의 火이니, 마땅히 清降해야 하고, 外에서 이루는 것은 風熱의 火이니, 마땅히 升散해야 한다. 그리고 風熱의 瘵에 두 가지가 있으니, 風은 因하여 熱이 생기는 경우와 熱은 因하여 風이 생기는 경우이다. 風으로 因하여 熱이 생기는 것은 風邪가 外를 막아서 火가 中에 鬱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外感인 陽分의 火이므로 風이 本이 되고 火가 標가 되며, 熱은 因하여 風이 생기는 경우는 熱이 極하여서 陰을 傷하여 火가 外에 達한 경우인데, 이것은 內傷인 陰分의 火이므로 火가 本이 되고 風이 標가 된다. 經에 ‘病을 治할 때는 반드시 本을 구해야 한다.’라 하였으므로 外感의 火는 당연히 먼저 風을 治해야 한다. 風이 散하면 火는 저절로 散하게 되니, 마땅히 升散해야지 清降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內에서 생기는 火는 당연히 먼저 火를 治해야 한다. 火가 熾하면 風은 저절로 清해지니, 마땅히 清降해야지 升散은 마땅치 않다.”라 하였다. 張介賓의 說을 고찰하면, 火가 陰에 있든 陽에 있든 火가 생기는 근본은 전신에 攣차서 활동해야 할 生氣가 邪氣에 의해 조직이 막히므로 해서 鬱熱(火)이나 風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風이 생기는 원인이나 火가 생기는 원인은 다 조직이 막힘으로 因하여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의 처방을 『素問·六元正氣大論』에 ‘木鬱達之, 火鬱發之’라 한 것이다.

66) “有者求之, 無者求之”의 注에 대해, 王水은 ‘心腎二藏인 水火의 有無라 하였고, 馬蒔는 ‘有는 病의 眞이고, 無는 病의 假이다.’라 하였고, 張介賓은 ‘有는 實을 말하고 無는 虛를 말한다. ‘求之’는 有無의 本을 求한다.’라 하였고, 高世拭은 ‘有는 形體의 有形이고 無는 氣化한 無形이다.’라 하였고, 黃元御는 “有者求之는 實 木中 ‘木’을 求한다.”를 말한 것이다.”라 하였고, 章楠은 有無를 邪氣의 有無로 해석했다. 病機十九條를 살펴 보면, 이 句節들은 五臟과 六氣의 邪氣에 대한 虛實의 病機를 다 언급한 것이다. 예를 들면 ‘諸病水液澄澈清冷, 皆屬於寒’의 경우는 寒에 遏된 生氣의 상태를 말한 것이므로, 有는 寒이고 無는 熱이며, ‘諸嘔吐酸 暴注下迫, 皆屬於熱’의 경우는 陽氣가 下降하지 못하여 相火가 反대로 升하게 되면 諸嘔吐酸이 나타나며, 陰은 陽氣를 받아야 上升하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下는 暴注下迫하게 되므로, 有는 熱이고 無는 寒이다. 그러므로 有無를 虛實이나 有形無形이나 邪氣의 有無로 볼 수 없다. 즉, ‘有者求之’는 그 屬한 바를 살피는 것이고 ‘無者求之’는 드러나지 않는 것도 살핀다는 뜻이다.

6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 304.
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 304. “微者逆之, 甚者從之, 帝曰何謂逆從? 岐伯曰, 逆者正治, 從者反治”

이상을 종합하면, 제자들은 『難經』 이론에 근거하여 下部인 命門에 火가 있다고 하여 命門火의 治법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內經』에는 『難經』에서 정의한 命門의 기능을 腎의 기능에 포함시켰고, 腎의 성쇠는 五臟六腑의 활동에 좌우된다고 하였으며, 五臟六腑의 君主를 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心君火는 邪氣에 의해 통로가 막혀서 火熱이 나타난다.(主不明則十二官危, 使道閉塞而不通) 그러므로 『內經』의 火의 治법은 心君火가 막힘 없이 전신에 활동할 수 있도록 소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內經』의 관점에서 보면 『難經』 이론에 근거하여 下部에 있는 命門火의 妄動과 虧損을 滋陰降火하거나 溫補腎陽하는 治법을 중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6) 補陰抑陽과 扶陽抑陰에 관한 고찰

朱丹溪는 『內經』의 “陽者天氣也主外, 陰者地氣也主內, 故陽道實 陰道虛”와 “年四十而陰氣自半也, 而起居衰矣.”에 근거하여 陽氣는 有餘하고 陰氣는 不足하기 쉽다고 하여 補陰抑陽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張景岳은 腎間命門相火인 陽氣가 전신을 활동해야 五臟六腑의 기능이 살아난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扶陽을 주장하였으며, 李圭峻은 心君火인 陽氣가 전신을 활동해야 五臟六腑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측면에서 扶陽論을 주장하였다. 이상 제가의 견해를 비교,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陰陽의 盛衰에 대하여 살펴보면, 『周易·繫辭上』에 “一陰一陽之謂道.”⁶⁹⁾라 하였고, 『繫辭下』에 “道有變動, 故曰爻.”⁷⁰⁾라 하였으므로, 한 번 陰(靜)했다가 한 번 陽(動)하여 變動하는 것이 道이다. 陽은 動을 주하고 陰은 靜을 주하므로, 陰陽이 交合함에 있어서 陽이 먼저 動하면 陰이 이를 받아 交合하여 陰陽의 化평을 이루므로, 陰陽은 둘로 분리하여 볼 수 없는 象이다. 따라서 動이 없는 靜은 없고 靜이 없는 動이 없으므로, 陽의 활동이 弱하면 陰의 收斂도 不足하게 되고 陰이 衰하면 陽의 활동도 당연히 弱하게 되는 것이 陰陽의 이치이며 자연의 현상이다. 가령 가을 겨울에 나무와 곡식의 뿌리나 씨앗이 땅속에서 收藏이 잘 되어 있어야 봄 여름에 왕성하게 잘 자라고, 곡식을 심었는데 봄 여름의 溫熱한 기후가 없으면 가을에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처럼, 陰이 衰하면 陽은 旺盛할 수 없고 陰이 다하면 陽도 絶하게 된다. 이를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陽生陰長, 陽殺陰藏.”이라고⁷¹⁾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內經』의 “陽者天氣也主外, 陰者地氣也主內, 故陽道實 陰道虛”를 해석하면, 본문은 天地의 動靜을 표현한 것으로 陽은 實(動)하여 外를 주하는 것이 정상이고 陰은 虛(靜)하여 內를 주하는 것이 정상임을 말한 것이므로 음양은 본래 어느 한 쪽이 有餘하거나 不足할 바가 없다. 그러므로 ‘陽道實, 陰道虛’를 朱丹溪의 주장처럼 陽氣의 有餘와 陰氣의 不足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年四十而陰氣自半也, 而起居衰矣.”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문은 『素問·陰陽應象大論』의⁷²⁾ 七損八益을 설명한 부분 중에 나오는데, 『素問·上古天眞論』의 七損八益을 설명한 부분과 의미가 서로 통한다. 『素問·上古天眞論』의 七損八益을 설명

69) 朱熹, 周易集註, 上揭書, p. 362.

70) 前掲書, p. 413.

7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 23.

7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 24.

한 결론 부분에서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故五藏盛, 乃能瀉。今五藏皆衰, 筋骨解墮, 天癸盡矣, 故髮鬢白, 身體重, 行步不正, 而無子耳。”⁷³⁾라 하였다. 『素問』의 이 구절은 五藏六府가 활동하여 생긴 精을 腎이 받아 藏하므로 五藏六府 활동의 盛衰는 腎에 나타난다. 그리고 『靈樞·本神』에 “五藏主藏精者也, 不可傷, 傷則失守而陰虛, 陰虛則無氣, 無氣則死矣.”⁷⁴⁾ 하여 五藏의 精血이 부족하면 陽氣가 虛衰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年四十而陰氣自半也, 而起居衰矣.”은 四十歲에 陽氣의 活動이 衰하여지고 腎精이 虧損됨을 “陰氣自半”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年四十而陰氣自半也, 而起居衰矣.”을 陽氣는 有餘하고 陰氣는 半이 되므로 制陽益陰해야 함을 설명한 문장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근 중국의 楊力은 天剛, 地柔를 『周易』에서 陽有餘 陰不足을 나타낸 문구라고 하였다. 그런데 天地 자체는 원래 有餘, 不足이 없는데, 『周易』에서 天을 剛陽, 地를 柔陰이라 한 것은 天地의 性情을 剛柔로 표현한 것이며, 陽은 有餘, 陰은 不足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損乾益坤이라 함은 乾의 剛健함이 덜어내고 坤의 柔順함을 도와 주고, 이를 받은 地의 柔順함이 乾의 剛健함을 도와주면 天地가 交變하여 萬物이 化生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陽剛이 막혀서 坤이 陰柔가 이를 받지 못하면 陰陽은 떨어져 精氣神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를 『素問·生氣通天論』에 “陽氣者, 若天與日, 失其所則, 折壽而不彰.”, “陰陽離決, 精神乃絕.”이라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邪氣(飲食, 七情, 外感)가 空竅를 막으면 前신에 두루 활동해야 하는 陽氣는 이 空竅를 行하려다 보니 처음에는 陽盛하여 熱이 나는데, 이를 『素問·調經論』에서 “帝曰, 陽盛生外熱奈何? 岐伯曰, 上焦不通利, 則皮膚緻密, 腠理閉, 玄府不通, 衛氣不得泄越, 故外熱.”⁷⁵⁾이라 하였고, 점차 盛한 陽氣가 지치게 되는데, 이를 “陽虛則外寒奈何? 岐伯曰, 陽受氣於上焦, 以溫皮膚分肉之間, 今寒氣在外, 則上焦不通, 上焦不通則, 寒氣獨留於外, 故寒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陽氣가 虛해져서 皮膚까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점차 안으로 들어오면 津液은 耗損되어 陰도 虛하게 되지만 막혀 있는 生氣는 유통하려고 애를 쓰니 熱이 나는데, 이를 『素問·調經論』에서 “帝曰, 陰虛生內熱奈何? 有所勞倦, 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 胃氣熱, 熱氣熏胸中, 故內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五藏六府·十二經絡·皮血肉筋骨에 行할 陽氣가 점점 안으로 위축되면 陽氣가 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더욱 차갑게 되고, 이 寒이 점점 쌓이면 陰盛하게 되므로(陰盛則寒), 陰盛에 위협받은 陽氣가 厥하게 되면 下寒上熱의 症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陰盛生內寒奈何? 岐伯曰, 厥氣上逆, 寒氣積於胸中而不瀉, 不瀉則溫氣去, 寒獨留, 則血凝滯, 滯則脈不通, 其脈盛大以澁, 故中寒.”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陽盛, 陰盛, 陽虛, 陰虛 등은 邪氣에 의해 조직이 막혀서 생긴 陰陽의 부조화이므로, 治法은 반드시 病의 陰陽虛實을 살펴서 氣血을 疏

通시켜 막힌 조직에까지 調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素問·生氣通天論』에 “故陽畜積病死, 而陽氣當隔, 隔者當寫.”⁷⁶⁾라 하였다. 그리고 陰陽을 調和시키는 養生法으로서 ‘恬憺虛無’란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하여 모든 망념[邪念]을 비우고 없애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체를 陰靜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靜해야 함을 말한 것으로, 恬憺虛無하면 眞氣가 순조롭게 前신에 활동함을 말한 것이다. 즉 이렇게 되면 陰陽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恬憺虛無’란 坎, 坤卦의 性情인 柔順靜과 동일시 할 수 없는 陰陽개념이전의 마음 본체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章楠은 治世의 道인 小人之道衰, 君子之道盛을 病理인 陰虛陽盛으로 비유하여 治病에 있어서는 抑陰扶陽인 治世의 道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治世의 道에서 抑陰扶陽이란 陰陽의 性情인 측면에서 善을 닦고 惡을 막아 君子의 道에 이름을 말한 것이지 病理적인 측면에서 陰虛하면 陽盛함을 말한 것은 아니고, 또 病理적으로 陰虛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히 陽虛해지므로 治世의 道를 病理적인 陰虛陽盛에 비유할 수 없다. 그리고 章楠은 “消長, 淑慝 二句는 朱子가 坤卦의 爻辭를 해석한 것인데, 이는 治世의 術을 말한 것이지 陰陽의 理致는 아니다. 진실로 淑慝이 있으면 당연히 扶抑을 해야 한다.”⁷⁷⁾라 하였다. 그런데 朱熹는 陰陽자체는 造化의 근본으로서 어느 한 쪽을 치우쳐 扶하고 抑할 게 없으나, 陰陽을 淑慝으로 구분하자면 陽主生, 陰主死하므로 扶陽抑陰해야함을 말한 것이며, 陰陽의 偏勝을 淑慝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素問·陰陽應象大論』에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라고 한 것처럼, 陰陽을 淑慝과 消長の 측면에서 말한 朱子의 抑陰扶陽은 天地萬物의 이치를 총괄하여 나타낸 것이며, 단지 世道의 治함을 국한시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天地陰陽이란 원래 어느 한 쪽도 有餘와 不足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天地陰陽의 변화를 둘로 나누어 대립관계로만 비교하고, 이를 비정상적으로 파악하여 補陰抑陽이나 扶陽抑陰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陰陽의 性情은 서로 달라서 陽은 生(動)을 主하고 陰은 死(靜)을 主하므로, 陽主生 陰主死하는 측면에서 扶陽抑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

『內經』의 君火相火理論과 『難經』의 命門學說을 근거한 제가의 補陰抑陽, 扶陽抑陰과 石谷의 扶陽論을 『內經』과 『周易』의 관점에서 比較,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周易』과 『內經』은 南方을 火라 하고, 이를 君主와 聖人에 비유하여 생명활동의 주체를 설명하였으며, 北方을 水라 하고 火가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君火의 활동이 생명력의 주체이며, 心君火를 받은 腎水를 相火라고 한 李圭峻의 견해가 『內經』 및 『周易』의 이론과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內經』

73) 上揭書, p. 11.

7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前揭書, p.

7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 218.

76) 上揭書, p. 16.

77) 上揭書, p. 187. “消長淑慝三句, 朱子解坤卦爻辭, 爲治世之術而言, 非陰陽之理, 固有淑慝而當扶抑也.”

에서 뜻하는 腎有兩藏의 의미는 藏과 瀉, 升과 降 등 두 가지 性情을 지닌 北方寒水를 뜻하는 것이며, 『周易』에서의 “坎加習”의 의미는 升과 降, 納과 泄, 終과 始 등 두 가지 性情을 지닌 北方水를 뜻한다. 離卦의 一陰과 二陽을 水臟과 火臟으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坎卦(☵)의 一陽과 二陰도 腎과 命門으로 나눌 수 없는 北方寒水이다. 『難經』은 兩腎을 독립된 각각의 臟으로 인식하여 左腎水, 右命門이라고 정의하였다. 『內經』은 腎을 두 가지 性情(右로는 納하고 左로는 泄하는)을 지닌 北方寒水라고 정의하였으므로, 腎에는 火가 없다고 한 李圭峻의 견해는 『內經』의 이론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內經』의 관점에서 보면, 命門相火는 心命을 出納하는 心包이며, 腎曰相火란 心君火를 받은 腎水임을 알 수 있었다. 下部에 있는 相火가 妄動하여 上熱이 나타난다는 제가의 견해는 『難經』의 命門相火說에 근거한 것이고, 君火가 腎水에 내려가지 못하고 上逆하여 熱이 나타난다는 石谷 李圭峻의 이론은 『內經』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陽氣는 邪氣(喜怒不節, 寒暑過度等)에 의해 막혀서 鬱熱이나 相火反升이 나타나므로, 陽氣 자체는 妄動이나 亢盛이 있을 수 없으므로, “氣有餘便是火”라고 한 제가의 견해는 『內經』의 이론에 부합않음을 알 수 있었다. 石谷 李圭峻의 扶陽理論인 “善인 正氣를 도우고 惡인 邪氣를 억누르는 측면과 心君火인 陽氣가 전신의 조직에 꼭 차서 끊임없이 활동해야 精血이 생한다는 측면에서의 扶陽抑陰해야 한다.”는 『內經』의 이론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廣岡蘇仙 難經鐵鑑 難經古注集成 5, 大阪, 東洋醫學研究會, 1982.
2. 丹波元簡, 素問識 難經疏証, 聿修堂醫書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3. 丹波元胤, 中醫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4. 馬蒔,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成輔社, 1975.
5. 賈得道, 中國醫學史略, 山西省, 山西人民出版社, 1979.
6. 方廣 編注, 丹溪心法附錄, 서울, 大星出版社, 1982.
7. 北京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講義, 上海, 醫藥衛生出版社, 1978.
8. 森本玄閑, 難經本義大鈔, 難經古注集成 1, 大阪, 東洋醫學研究會, 1982.
9. 上海中醫學院各家學說教研室,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10. 徐大椿, 徐大椿醫書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1. 徐春甫, 古今醫統秘方大全,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12. 薛己 等著, 薛氏醫案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3.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出版社, 1984.
14.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5. 楊士瀛, 仁齋直指附遺方論,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1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出版社, 1986.
17. 楊雄, 太玄經, 台北, 廣文書局, 1988.
18. 吳謙, 醫宗金鑑,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19. 王新華 編著, 中醫歷代醫論選,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20. 王綸 撰 薛己 注, 明醫雜著, 香港,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21. 王九思 等集注, 難經集注, 台北, 中華書局, 1985.
22. 王冰, 補注黃帝內經素問,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23.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台北, 億昇出版社.
24. 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 正統道藏 第36冊,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57.
25. 劉完素, 劉河間三六醫書, 서울, 成輔社, 1976.
26. 袁樹珊 編著, 命譜, 台北, 洞德堂, 1948.
27. 李嗣,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難經古注集成 1, 大阪, 東洋醫學研究會, 1982.
28. 李杲 外五人,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出版社, 1983.
29. 李圭峻, 素問大要(影印本), 서울, 驪江出版社, 1988.
30. 李中梓 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31. 李時珍, 本草綱目, 香港, 商務印書館, 1930.
32. 李中梓,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33. 李聰甫, 劉炳凡 編著,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서울, 成輔社, 1983.
34.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2.
35. 張介賓, 景岳全書,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0.
36. 章楠, 醫門棒喝, 서울, 東南出版社, 1985.
37.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38. 張世賢, 圖注八十一難經, 難經古注集成 2, 大阪, 東洋醫學研究會, 1982.
39. 張元素, 醫學啓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8.
40. 張子和 撰 張海岑 外三人 校注, 儒門事親校注, 河南省,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41.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42. 鄭玄 注 賈公彥 疏, 周禮注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43. 趙獻可, 醫貫, 香港, 人民衛生出版社, 1959.
44. 朱震亨, 丹溪心法, 北京, 中國書店, 1986.
45. 朱熹, 原本集註周易, 서울, 明文堂, 1978.
46. 陳言, 三因極一病症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47. 蔡沈, 書傳集註, 서울, 明文堂, 1981.
48. 許叔微,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50. 華佗, 中藏經,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51.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77.